

2-6 양우진

2013년 5월 11일 (일요일)

날씨 : 맑음

제목 : 캠핑은 언제나 해도 재밌어

캠핑에 갔다. 그곳에는 사람들이  
말았다 나는 엄마와 텐트와 그늘  
을 치고, 공터에 가서 해먹에  
서 놀았다. 아빠가 믿어 주었다. 나는  
신이 났다. 그 때! 말이 나타났다.  
그래서 나는 공터에 설치되어  
있는 해먹을 치웠다. 하지만 그래도  
괜찮다. 왜냐하면 나는 말이 좋다.  
말이 달린다. 나는 사진을 찍  
찍었다. 사진이 멋있게 나왔다.  
그리고 저녁을 먹었다. 그리고는  
아빠가 컴퓨터로 영화를 보여주었다.  
게임도 했다. 그랬더니 어서가 됐  
다. 나는 텐트에 들어가서 잤다.

2-6 양우진